

KIA 발데스 '도움 안되네'



짙은 '불량 수비' 팀은 '조마조마'

'구세주' 기대 깨지고 '천덕꾸러기'로 전락

'천덕꾸러기가 된 구세주' KIA 타이거즈가 지난 24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데스가 2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1루로 공을 던지면서 타자만 아웃이 됐다. 하지만 당연히 더블 아웃이라 생각했던 1루수 장성호는 공수교대를 위해...

발데스는 지난 17일 LG와의 홈경기에서는 늦장수비로 팬들의 속을 뒤흠려 놓기도 했다. 0-1로 뒤지던 7회 1사 2루에서 LG의 1번타자 이대형이 발데스...

앞선 16일 경기에서는 2회 무사 1루에서 단독으로 번트를 시도하다 쓰러진 발데스가 차치하고 있다.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발데스의 불량수비와 플레이가 속출하면서 '거포 용병'의 전형을 깨고 '수비형 용병'을...

KIA의 팀실력은 24일 현재 23개로 공동 3위, 팀내 1위는 6개의 실책을 기록한 발데스가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터아웃으로 들어간 KIA 수비수들이 황급히 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의 난조로 8회 6실점을 하며 2-8로 역전패를 당했다.

7회까지 2-2로 맞서며 팽팽한 접전을 벌이던 두 팀의 승부는 8회 말에 결정됐다. 동성고 마운드는 무려 5개의 4사구를 허용하며...

6실점을 하는 바람에 4년만의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동성고 결승행 실패 청룡기 고교야구

광주 동성고가 제 63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동성고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한국 여자배구 올림픽행 좌절

도미니카에 1-3 패... 2승5패

올림픽 세계예선전

한국 여자배구가 중남미의 강호 도미니카공화국에 마하 4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실패했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25일 일본 도쿄의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세계예선전 마지막 경기에서 김민지(14득점)와 배유나(12득점, 이상 GS칼텍스)가...

한국은 1~2차전에서 푸에르토리코와 태국을 이긴 뒤 내리 5연패하면서 2승5패로...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이 세르비아를 꺾어 우승해도 한국은 2승5패로 승패가 같은 카자흐스탄에 점수득실률이 뒤져 아깝게 탈락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광주소년체전 31일 화려한 광파르

선수단 1만6천명 사상 최대 규모 B-boy 공연 등 종합 문화축제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스포츠 꿈나무들의 잔치인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빛과 문화의 도시' 광주에서 열린다.

지난 1994년 광주에서 소년체전을 치른 후 1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소년체전은 31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소년체전은 광주 1천 25 명(선수 734 명, 임원 291 명), 전남 1천 162 명(선수 817 명, 임원 345 명) 등 전국 16 개 시·도에서 사상 최대인 1만 6천 816 명의 선수단(선수 1만 1천 893 명, 임원 4천 923 명)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32개 종목(정식 30개, 시범 2개)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광주는 메달밭인 레슬링과 양궁의 선전이 기대돼 종합 순위 3위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전남은 기록경기와 초등학교부의 경기력 향상으로 전년도보다 금메달 5개 이상을 더 획득해 한자릿수 순위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식전공개 행사는 함께 뛰는 들뜬 울림, 맑고 푸른 하늘



광주 체육중학교 학생들이 31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제37회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결단식을 가진 뒤 승리를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의 몸짓, 가슴으로 보내는 이야기 등 '초록줄기의 행진'을 테마로 진행되며 '무릎(무등산의 옛이름·무지개를 뿜는 돌) 숲의 탄생'을 주제로 식후행사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년체전에는 월드컵경기장 주변광장(북문)에서 체전기간동안 이벤트 상설무대를 운영해 청소년을 대

으로 하는 B-boy, 댄스, 태권무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펼친다. 또 소년체전 기념 스포츠백일장 및 사생대회(6월 1일) 등도 함께 열려 종합문화 축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바람아 불어다오' 25일 오전 한강 난지요트장에서 열린 '제1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RS : X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김보경 프로 첫 정상 '입맛춤'

최혜용에 1홀차 역전승

KLPGA 두산매치플레이

김보경(22·던롭스리코스·사진)이 7년 만에 펼쳐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매치플레이에서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

김보경은 25일 춘천 라레나 골프장(파72·6천381야드)에서 열린 두산매치플레이이 챔피언십 결승에서 마지막홀까지 가는 접점을 펼친 끝에 최혜용(18·LIG)에게 1홀차 역전

승을 거두고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보경은 1억원의 상금을 받아 시즌 상금 랭킹도 크게 끌어 올렸다.

2006년 프로에 데뷔한 뒤 우승컵이 없었던 김보경은 이날 4강전에서 우승 후보 박지은(29·나이키골프)과 신지애(20·하이마트)를 꺾은 김혜운(19·하이마트)을 4홀차로 여유있게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김보경은 하루에 준결승과 결승을 잇따라 치르느라 힘겨운 승부를 펼쳤다. 최혜용이 전반에 파를 지키며 안정된 경기를 펼친 반면 김보경은 1번홀(파4)과 5번홀(파4)에서 보기를 해 전반에만 2홀을 뒤졌고 10번홀



격을 시작했고 13번홀(파3)에서 그린 프린지에서 친 칩샷이 그대로 홀과 깃대 사이에서 끼어 파 세이브를 하는 행운까지 찾아와 힘을 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김보경은 17번홀(파4)에서 최혜용이 보기를 한 틈을 타 동점을 만든 뒤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 냈다.

호주 추딘 레이이크힐스 우승

호주에서 건너온 앤드류 추딘(36)이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아투어 레이이크힐스 오픈에서 우승컵을 차지했다.

추딘은 25일 경남 함안의 레이이크힐스 한인골프장(파72·7천11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로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의 추격을 4타차로 따돌렸다.

김형성은 맹추격을 벌이며 토마토저축은행 오픈 이후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노렸지만 막판에 무너져 5언더파 283타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작년 한국프로골프 외국인 시드 선발전에서 공동12위를 차지해 올해부터 한국에서 뛰고 있는 추딘은 올 시즌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외국인 선수가 됐다.